

# 44

## 올바른 선택을 한 롯

룻 1~4장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 57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오늘 배울



1.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함을 압니다.
2.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을 위해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압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은 그를 붙잡  
 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과 그 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 1:14~15)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  
 개 아래 를 받으러 온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 2:12)



## 을 이해하기

가장 절망적이고 암울한 골짜기에 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그를 희망의 봉우리에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룯기는 룯이라는 여인의 굳건한 믿음의 선택과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하나님께 보답을 받아, 비극에 처한 가정이 회복되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룯기의 서두에는 나오미의 가정에 불어 닥친 불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닥치자 두 아들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사했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은 했지만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방 며느리 둘만 남게 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를 자유롭게 해 줄 마음으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좋다며 떠났지만 둘째 며느리 룯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룯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방인을 배척하는 땅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룯의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보상이 되었을까요?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1:16)

But Ruth said : “Entreat me not to leave you, Or to turn back from following after you: For wherever you go, I will go ; And wherever you lodge, I will lodge;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Ru 1:16)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녀와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적어 봅시다(룻 1장).

룻	
오르바	

2

룻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정리해 봅시다(룻 4:21~22, 마 1:1, 5~6).

3

올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받은 성경 속 인물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4

내가 룻처럼 올바른 선택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통해 배운 점을 정리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1:6

---

---

---

---

---

---

---

---

이

시 2:12

---

---

---

---

---

---

---

---

화

시 37:5

---

---

---

---

---

---

---

---

↑

시 37:27

---

---

---

---

---

---

---

---

↓

단 12:3

---

---

---

---

---

---

---

---

↓

마 13:43

---

---

---

---

---

---

---

---

↓

계 3:4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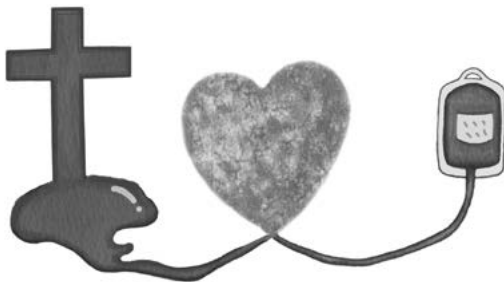
## 수혈과 보혈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딸을 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불행히도 그 딸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육체는 정상으로 성장했지만, 정신연령이 낮았고 가끔씩 혼미상태에 빠지는 간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그 선생님은 아이가 커감에 따라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안타깝게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 둘째를 낳는 것도 포기한 채 6년 동안 온 정성을 다했지만 효과가 없어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에게 아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 더 낳아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딸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나는 딸 아이에게 몇 번이나 내 피를 수혈했습니다. 때때로 '차라리 포기하자'는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지만 내 가슴이, 내 본성이, 내 피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라는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나는 정말 위로할 말을 잊게 되었습니다. “내 피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에 나는 내 피가 맺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딸을 위해 수혈을 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될 줄 모르는 딸을 부여안고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아버지처럼, 죄로 말미암아 간질병 같은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며 한없이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벧전 1:18~19)



질문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지요?

주식을 사는 것을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은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란다면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주식은 언제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 투기성 자본입니다. 한마디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여기에다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꼭 하고 싶다면 우량 기업에 여윌 돈을 조금 투자해 두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활을 거기에 걸면 안 됩니다. 대학생들 중에도 학자금을 용자해서 주식투자를 한다고 들었는데,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채워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지 가만히 앉아서 낮잠 자는 새를 먹이시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일꾼들은 열심히 일했던 자들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엡 4:28)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투기성 상품에 자신을 매어 놓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경마장에서 마권을 산다든지, 복권을 사 모은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